

길 위의 죽음, 로드킬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언제부터나 갑자기 튀어나온 전쟁 같은 용어 ‘로드킬(road kill)’이란 말은 어느새 좀 안다는 사람들 간에 유행어처럼 되 버렸다. 좋은 우리말을 놔두고 꼭 외국 좀비 영화 제목 같은 말이 왜 불쑥 튀어나와 자리를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계나 언론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니 그대로 쓸 수밖에. 여담이지만 자연과학 용어도 기왕 쓰는 것 우리말로 좀 찾아서 아니면 만들어서 쓰면 좋겠다.

이번에 즐겨보는 모 교양방송에서 이 로드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한 실태조사라 굉장히 의미 있고 또한 많은 걸 느끼게 하기도 했다.

시작은 로드킬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엔 왜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는지, 마지막으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도 마치 결론 없이 주장만 난무한 토론 방송처럼 거의 대안 제시 없이 싱겁게 끝나버려 좀 찝찝한 여운을 남기기는 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로드킬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절감할 것이다. 고백컨대 나 역시 언젠가 야간에 국도를 달리다 어떤 야생동물을 친 후 그냥 달아난 경험이 있

다. 그리고 그 때의 죄책감으로 길거리에 나자빠진 동물들에게 아직도 굉장히 죄의식을 가지며 조건이 허락하면 (장갑이나 삽이 있을 경우) 물어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을 차로 치어놓고도 그저 내 차 먼저 잘못 된 건 없는지 그런 후 재수 없다고 벗어나기 바쁜 것이 현실이다.

이걸 반증하는 게 도로위에 아침마다 널린 치워지지 않고 수없이 밟고 지나간 처참한 주검들이고. 주로 로드킬 하면 야생동물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죽는





경우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 들이다. 특히 집안에만 키우던 애완견들이 방치돼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평상시 동물들에게 욕을 하지 않는 나지만 그렇게 도로 위를 방황하는 개들을 보면 “멍청한 것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고 개를 도로 바깥으로 쫓으려고 한참을 차와 개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하지

만 그 순간뿐 분명히 그 개는 도로로 다시 뛰어들 것이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앞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방송에서와 같이 대개의 야생동물들처럼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눈 안에 반사기능을 가지고 있어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착시현상을 일으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게 된다. 이런 걸 이용해 현대의 사냥꾼들은 위압적인 ‘서치라이트’를 가진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야간에 눈을 마비시키는 비겁한 사냥을 해댄다.

그렇다고 야생동물을 모두 주행성으로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선글라스를 씌울 수도 없으니 인간들이 이런 비겁한 문명의 이기를 버리지 않는 한 야생동물들의 대량학살은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동물들을 도로에 못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난알이나 고추를 도로에 말리듯 양서 파충류나 포유류도 따뜻하고 매끈한 도로를 좋아하기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단지 사람들처럼 그곳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물론 개 중에는 멧돼지 같이 영리한 동물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우리의 도로는 생태적인 고려가 거의 없이 도상에 그은 선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관광개발명목으로 지자체마다 동물들의 필수 이동경로인 강가나 바닷가에 도로를 놓아버린다. 드라이브하기엔 그지없겠지만 덕분에 차에 치이는 동물들은 이런 도로 개설 수에 비례해 늘어만 간다. 소음이나 먼지를 줄인다는 투명 방음벽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부딪쳐 죽어간다. 또 하나의 공중 로드킬이다.

유일한 대안으로 생태통로를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동물들

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무성의하고 숫자마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제안하건데 생태통로를 늘리고 다양화(크기, 위치)하며 인공적인 것을 감추는 조경기법을 도입했으면 한다. 아울러 아예 위험도로에는 야생동물들

